

진안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진안홍삼스와 1000만원
재전개인택시 진안향우회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
위원회 100만원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개인과 기업, 단체 등 각계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개인과 기업, 단체 등 각계계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진안홍삼스에서 1,000만원, 재전개인택시 진안향우회에서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유경종 진안홍삼사 대표는 "요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나 진안군의 장학사업에 일조하고 지역 교육발전은 물론 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매년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민열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진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수련관 동아리회원들(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진안시장 살리기 먹거리판매부스운영, 진안홍삼축제 때 청소년 문화축제 부스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많은 수익금을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번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김흥기 청소년운영위원장은 "청소년수련관의 2018년 슬로건이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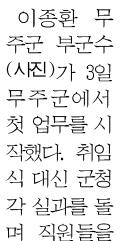
소년 활동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슬로건에 걸맞게 청소년 활동을 통한 수익금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부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는 대상이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존재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항로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안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겠다”

이종환 무주군 부군수 취임...이태현 부군수 퇴임



이종환 무주군 부군수(사진)가 3일 무주군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 대신 군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을 만난 이종환 부군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직장, 주민들이 가는데 혼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군수는 “안살림을 맡은 부군수로서 군수님을 보좌하는 조력자로서 무주가 희망을 키우고 농업, 문화, 관광, 체육의 고장으로 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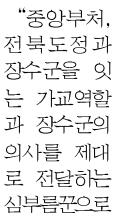
이종환 부군수는 고창군 출신이며 1961년생으로 지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축산위생연구소장과 농축수산식품국 축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무주군 부군수로 재직했던 이태현 前 부군수는 3일 이임식을 끝으로 도(道)로 자리를 옮겼다.

1987년 정읍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태현 부군수는 부안군 변산면장과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과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무주군 부군수로 취임한 후에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추진과 무주년(빛)불축제를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세우는 등의 역할을 발휘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심부름꾼 되겠다”

안동환 장수군 부군수 취임



“중앙부처, 전북도정과 장수군을 잇는 가교역할과 장수군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장수군 신임 안동환 부군수(사진)의 취임 각오다.

장수출신으로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을 지낸 안동환(57) 장수부군수가 3일 취임했다.

안 부군수는 “공직자로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장수군민에게 주시는 복지의 의미를 늘 잊지 않겠다”며 “공직자는 역사의 책임자로서

흔들림 없는 중심잡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최용득 군수님과 직원분들이 쌓아 오신 성과가 앞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복한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부군수는 장수출신으로 1982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농축수산식품국 친환경유통과장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장 등 도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체육부장관 올림피아추진유공, 보안업무발전유공, 정부포병공무원 표창을 받았으며, 조심세한 화합형 리더로 알려져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황의탁, 사회공헌 大賞 ‘사회인 대상’ 수상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회장)

지역상생·사회봉사·기술증진·인재육성·환경개선 등에 공헌한 공로로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황의탁 회장(사진)은 구랍 28일 '시사투데이'가 주최·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 大賞'에서 국민화합·지역상생·사회봉사·기술증진·인재육성·환경개선 등에 공헌한 공로로 사회인 대상을 수상했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황의탁 회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무주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헌신하고, 나눔·배려·봉사 실천·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이끈면서, 사회적 책임실현과 소의계층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인 大賞에 선정됐다.

황의탁 회장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소의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우 이웃을 가깝게 돌보며, 사회적 책임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국제로타리 3670지구 새마을로터리를’ 창설 및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황 회장은 ‘전국농민회 전북도

연맹 무주군동맹회’의 설립하고 초대 회장과 중앙정부·지자체를 상대로 수년 동안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대변에 힘써 왔다.

황 회장은 “양돈·축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은 당연한 책무”라며 “더욱 봉사하고 나누며, 무주군민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군민들이 행복한 무주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며 “깨끗하게, 바르게, 투명하게 단체를 이끌자”가 신념이며, “무주군과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과 사이버팜 8일부터 분양

장수군은 장수사과 사이버팜 분양을 2018년 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장수사과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장수사과시험장 1,000주, 거점농가 2,500주 총 3,500주 분양 계획으로 분양가격은 1주당 5~10만원, 최저 15~30kg의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분양에 참여한 고객은 장수사과시험

장 홈페이지를 통해 전 생육상황을 알 수 있으며, 꽃피기, 열매숙기, 수확 체험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분양 신청은 온라인(www.myapple.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사과나무 분양받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1인 품종당 2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2018년도 장수군의회 사무식

2장수군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2018년 사무식을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유기홍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은 새해에도 장수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성 겸비 ▲역량강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열정으로 희망의 새해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청정 마령 만들기 앞장
6개 우수마을 시상

진안군 마령면은 쓰레기 안태우고, 안 버리고, 안묻는 주민주도 청결운동인 3NO운동으로 청정 마령 만들기에 앞장선 우수마을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마을은 원강정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로 1월중 이장회의를 통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령면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 쓰레기 3NO운동을 추진해왔으며 관내 기관단체와 함께 청결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거장인 클린하우스 설치로 매주 4회 재활용 분리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관내 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린마켓을 발부해 재활용 수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마령면은 재활용품 수거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8,000장을 구입해 전 마을에 배부하고 매년 관내 초·중,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청정환경 지키기는 물론 지역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마령면의 재활용품 및 폐비닐 수거,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청 민원실 로비 컴퓨터로

무주군청 민원실 로비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실 현관과 사무실 사이의 여유 공간을 주민센터로 조성한 것, 무주군에 따르면 이곳에 자동문을 달고 냉·난방기와 탁자, 의자, 컴퓨터와 함께 팩스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기 등을 설치했다.

군청 민원실에서는 그동안 관내 어린 이집 아이들과 동호인들의 그림과 캘리그래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매월 교체·전시하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민원실 안에는 협업축정기와 자동 신장·체중계, 민원인용 컴퓨터 등을 비치해 편의를 제공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